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 부위원장 모두발언

2019.4.10.(수) 14:00~15: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금 융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업권별 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가장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은 '17년 8.1%에 이어  
작년에는 5.8%로 확연히 낮아져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되었습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 ('15)10.9 ('16)11.6 ('17)8.1 ('18)5.8

또한, 금융감독원 속보치에 의하면  
'19년 1~2월중 소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0.9조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8.3조원) 대비 7조원 이상 감소하는 등  
하향 안정화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 중이라 평가한 바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소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권의 협조와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II. 향후 리스크 요인 점검

---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가계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등을 감안할 때, 금리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9.2월 은행권 가계대출금리는 3.50%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그러나, ①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명목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가계소비, 경제성장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②또한, 금리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낮아졌으나, 금리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대출은 금리변동 영향에 노출되어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 비중 : ('13말) 15.9% → ('18말) 45.0%

특히, 취약·연체차주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지속적인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③한편,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로의 편중이 심화되어 왔고, 상호금융권·여전업권을 중심으로 연체율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 \* 업권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18말, %) : (상호금융)31.9 (저축은행)31.5 (은행)8.6
- \* 업종별 대출액 비중('15말→'18말 잔액기준) :  
(부동산임대업) 33→40% (제조업) 19→15% (도·소매업) 16→14%
- \* 업권별 연체율('17말→'18말, 잔액기준) :  
(상호금융) 0.74→1.15% (여전) 2.04→2.66% (쏜금융권) 0.51→0.61%

보다 면밀한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Ⅲ.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지속 : '5%대'로 증가율 억제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정부의 목표는 ①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가겠습니다.

또한, ②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③가계대출 동향을 세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출 급증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각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을  
생산적·혁신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예대출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개별 은행에서는  
올해 말까지 단계별 목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금감원은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가계부채 질적 관리 강화 : 구조개선 노력 강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금리 상승 등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주담대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습니다.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의 경우  
'19년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한 행정지도가 4월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19년도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비율(고정금리/분할상환, %) :  
(은행) 48.0 / 55.0 (보험) 45.0 / 60.0 (상호금융) 목표비율 없음 / 30.0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규 설정하겠습니다.

아울러, ② 금리변동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소지에 대비하여  
완충장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18일에는 은행권에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이 도입되었으며,  
7월에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①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상품 ②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p 이내) 상품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상품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③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

부동산임대업대출→생산적 업종 대출로의 전환(Shift)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안정화하고,  
부동산임대업대출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에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하여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금융당국이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①전반적인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낮추면서,  
②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에 대한 대출로  
이동(Shift)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기준에 발표한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 등

개별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6월부터 제2금융권 시행

‘18년10월말부터 DSR을 시행한 은행권의 경우,  
시행 전에 비해 평균DSR, 高DSR 취급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 : (‘18.6월) 72% → (‘18.11월~‘19.2월) 46.8%  
은행권 DSR 90% 초과 가계대출 비중 : (‘18.6월) 19.2% → (‘18.11월~‘19.2월) 8.2%

소득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고,  
高DSR 여신에 대한 승인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영업점별 DSR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각 업권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는 만큼  
DSR 시행시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 수준, 이행 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제2금융권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DSR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한층 더 선진화된 대출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협회, 상호금융 중앙회,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IV. 마무리 말씀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소중한 권이 보여준  
그동안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에 자만하여  
가계부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금융위기는 부채위기에서 비롯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케네스 로고프 교수(하버드대)는 800년 동안 66개국에서 반복된  
호황과 불황의 역사를 통해 과도한 부채는 항상 금융위기로 막을  
내린다는 것을 발견(저서 “이번엔 다르다” 中)

가계부채 문제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도 가계부채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출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금융회사의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